

## 일본의 양계업



윤 병 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농학박사

### 산 란 계

#### 태양의 혜택을 받은 생명력이 강한 닭의 알

도릿꼬 클럽 「호시노(星野)」는 「많은 알을 낳는 닭」이 아닌 「건강하고 튼튼한 닭」을 지향하여 「맛·안전·적기생산·제대로 된 계란」을 키워드로 닭 만들기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현재 10종류 이상의 계종을 보유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의 맛이나 품질에 역점을 두고 선발·작출 된 닭이라는 것이다.

호시노 대표는 「우리는 「고유의 품종이 없는 나라의 양계는 쓰러지고 만다.」는 것을 신념으로 닭을 만들어 왔다. 합리성의 관점에서 보면 성적은 좋지 않지만, 맛이나 영양 등은 대단히 우수하다」고 하며 「멜라닌 색소가 강한 닭일수록 맛있는 계란, 생명력이 풍부한 알을 생산한다. 단백질이나 지질은 물론, 미네랄, 아연, 마그네슘, 아미노산, 셀렌 등을 풍부하게 함유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자가 생산의 오골계, 시마다(島田) 토종닭의 알을 사용하여 스스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 하는데, 「건강한 닭이 낳은 신선한 알만을 사용하여, 캡슐로 만드는 등 일부의 공정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손으로 제조하고 있다.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품질은 자부한다.」는 호시노대표가 말하는 오골계 난황유는, 일반계란을 원료로 한 것보다 각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어떤 종의 비타민E 등은 2,500 배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한다.

합리적인 생산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

을 따르는 형태로 생산을 계속하는 도릿꼬클럽은 원유가격 상승과 사료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농업의 기본에 되돌아선 생산방식이 앞으로는 다시 바뀌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계란·육 정보 발췌).

#### 연간 가격 230엔(¥)/kg 난가 실현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협력 요청

일본계란생산자협회(JEPA)는 배합사료가격 등의 폭등에 의해 생산비가 대폭 상승하고 있어 비용에 맞는 난가수준의 실현을 목표로 (사)일본양계협회와 협력하여 연간 평균 230엔/kg 대의 난가 실현을 목표로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자에게는 수요조정의 계속을 요청하면서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생산자에게는 긴급 위기타개 호소 문서를 작성 배포하여 (1) 작년 연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대군 사육자를 중심으로 한 자주적인 도태운동의 지속 (2) 병아리는 현재의 감소하는 상황을 유지하여 앞으로도 전년동기대비 95% 수준 목표 (3) 소비자·유통관계자에게 생산자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소매가격에 반영하는데 이해를 구하는 운동을 각지에서 실시한다.

소비자에게는 물가의 우등생인 계란이 커다란 위기가 되었음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팜플렛을 작성하여 각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한편, 할인판매점·생협매장의 계란 코너용 홍보물을 만들어 이해를 구하기로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육 계

### 육계 사육호수 · 사육수 감소, 호당 사육수 증가

일본농림수산성이 발표한 2007년 닭고기 유통통계에 의하면 2008년 2월 1일 현재 육계(브로일러)의 사육호수는 2,456호로 '06년 대비 4.9%(127호) 감소하였다. 사육수수는 1억298만 7천수로 동기간 대비 2.2% 감소한 수치이다.

따라서 호당 사육수수는 4만 1,900수로 동년 대비 2.7% 늘어나 1,100수가 증가하였다. 사육호수는 29개 지방에서 감소하였으나 1위 宮崎, 2위 鹿兒島, 3위 徳島, 4위 岩手, 5위 兵庫, 6위 熊本의 순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육수수는 25개 지방에서 감소하였지만 13개 지방에서 증가하였고 사육수수 증가 순위는 1위 宮崎, 2위 鹿兒島, 3위 岩手, 4위 靑林, 5위 徳島, 6위 熊本의 순서였다. 1호당 사육수수는 17개 지방에서 감소한 반면 20개 지방에서 증가하여 1위 北海道, 2위 靑林, 3위 岡山, 4위 島根, 5위 鳥取, 6위 岩手が 각각 차지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배합사료 농협 톤당 1,500엔, 일반회사 2,150~2,300엔 가격인상

금년 7~9월 사이의 배합사료가격이 1,500~2,300엔(¥)까지 인상되어 3분기 연속 인상되면서 사료기금으로부터 보전은 각사의 인상금액을 가중평균으로 월말에 각 기금의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만, 생산자의 실질부담금액은 5,000엔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비용 상승을 어떻게 가격에 전가시킬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가 되었다.

미국 중서부지방의 오랜 장마로 옥수수의 시카고 경매가격이 6월 중순부터 1뷔셀에 7달러가 되었으며 해상운임도 톤당 140달러까지 치솟았고 환율은 1달러에 107엔 가까이 되었다. 옥수수의 시카고 경매가격이 1뷔셀에 10센트 인상되면 1톤당 배합사료가격은 약 300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운반비가 톤당 10달러 인상되면 배합사료가격은 800엔, 환율이 1달러에 1엔 인상하면 배합사료가격은 300엔 인상요인이 된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6월 12일 추가 긴급대책을 발표하여 배합사료기금대책으로 450억 엔의 재원을 확보하였다. 내용은 (1) 통상기금의 재원확보를 위해 이상기금의 발동기준을 2/4분기에서 4/4분기에 한하여 2.5% 낮춘 112.5%로 하향 조정하여 발동기준의 인하에 의해 이상기금으로부터의 보전이 100억엔 정도 증가하여 통상기금의 부담이 100억엔 정도 경감시킨다, (2) 통상기금의 보전재원에 대하여 (독)농축산업진흥기구로부터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에 350억엔을 배당하여 통상기금에 무이자로 대여하고 상환기간은 2025~2027년까지 3년간을 두기로 하였다.

사료기금에서 보전 지급되는 금액과 긴급대책 재원으로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의 인상분은 대응할 수 있으나, 옥수수가격이 1뷔셀 당 7달러를 계속 넘는 경우 연말의 배합사료가격이 다시 높아져 축산경영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계명신문 발췌). **양계**